

□ 욕 권하는 사회에 생각하는 욕의 역동성

# 욕 속의 카타르시스 효용을 느껴보자

## 욕은 살아 숨쉬는 민중문화의 힘

홍 대 한

(국문과 강사)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욕들이 늘어난다. 성(性)에 대한 원초적인 말부터 비유적이며 함축적인 내용인 담근 고도의 말까지가 끊고두 사용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대중 앞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을 저질이라고 판단하며, 지성인이라면 욕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울컥 울컥 치미는 자신의 감정을 한 두마디 욕설로 풀어버린다. 마치 남이 하는 욕은 저질 욕이고 자신이 하는 욕은 감정을 풀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듯이, 이런 것을 보면 분명 욕은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광주에서 열렸던 전국욕대회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욕에도 등급이 있다. 적절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풀어버리는 욕은 저급의 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울컥 치미는 대로 내뱉는 X자식, X팔, X까네 등의 욕은 저급한 욕의 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들이 우리들의 억눌린 마음을 풀어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력을 이런 식으로나마 풀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은 조건반사적으로 이런 욕들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고도의 비유법, 과장법이 사용된 욕들은 고급의 욕이다. 우리 문화의 중요한 자산이 된 탈춤에서, 말뚝이 양반을 기롱하면서 하고 있는 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함을 넘어서 가슴 후련한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옛다, 이 재미를 불고 금각 대명을 갈 양반들이 아무리 쌍눈이라

고 이 놈 저 놈 할지라도 말뚝이 근본이나 들어보아라."고 통렬하게 양반을 부르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 민중문화의 힘이다. 이러한 고급 욕은 문화를 살찌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봉건사회에서 이렇게 한 번 쯤 현실에서 일탈된 욕들을 하는 것은 현실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 있는 힘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욕이 가지고 있는 효용을 꼬집어 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감정의 찌꺼기를 풀어버리게 한다. 매일매일 쌓이는 스트레스를 그냥 가슴에 쌓아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한 삶은 얼마나 무기력한 삶이 될 것인가. 집단적으로는 현실의 부조리를 인식하여서 현실에 일탈을 가져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무조건 욕이 나쁘다고 몰아부칠 일은 아닌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자. 그러면 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욕하는 것이 나쁘다면 욕 먹을 것을 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를 지키면서 순리에 맞게 살아가면 '욕'이라는 것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 사람들은 욕을 열심히 하면서 욕이 횡행하지 않을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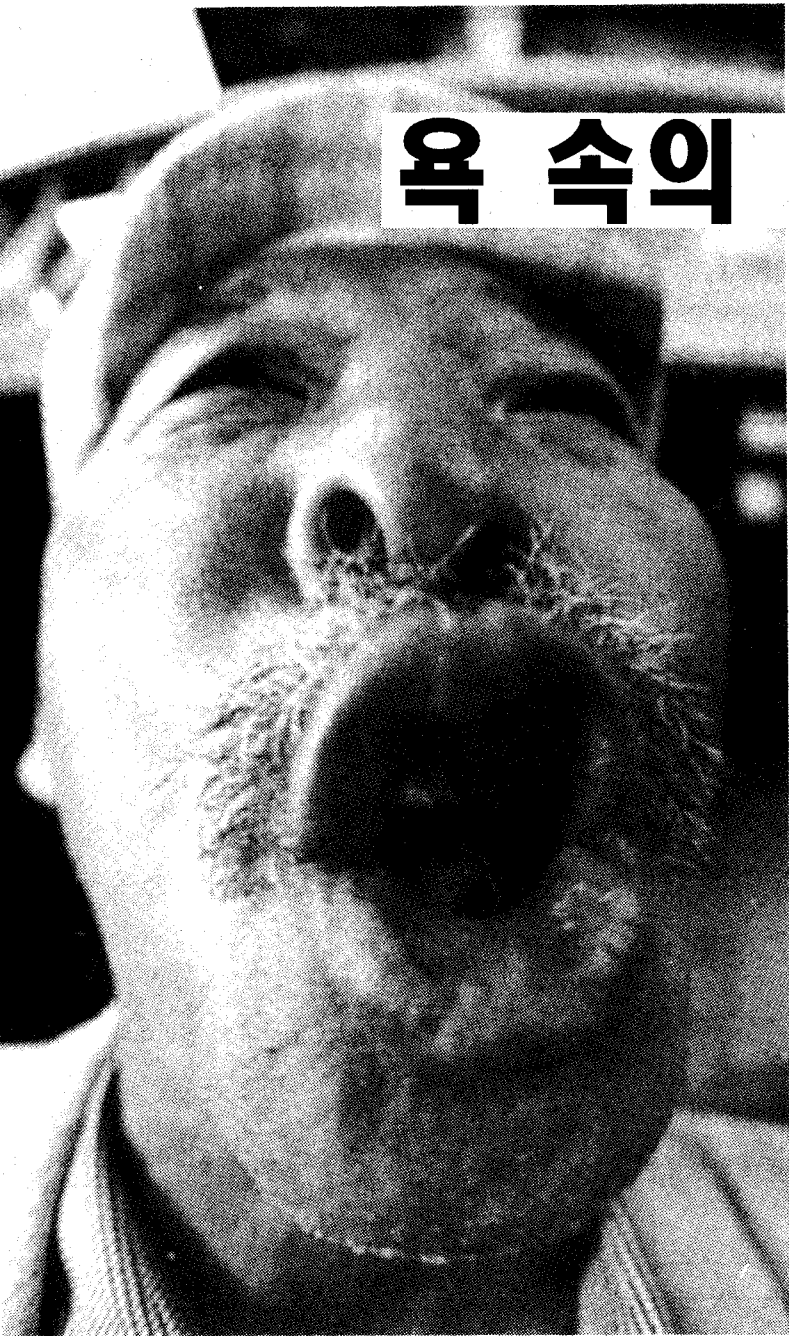
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욕담(肉談)에 가까운 성적인 욕부터 사람의 배설물을 거론하는 욕, 인품에 어긋나는 상황을 가정하는 욕, 짐승에 비유해서 사람을 폄하하는 욕 등 가짓수가 많기도 하다. "계집 배에 X박을 놔"이라는 욕은 엉뚱한 것거리를 하는 사람에게 하는 욕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범하고 있는 엉뚱함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다. "똥물에 튀겨 죽일놈"이라는 욕은 사람이면서 사람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욕이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는 준엄한 비판의 뜻이 담겨 있다.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 또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굳이 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상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돌려 놓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앞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욕들이 될 것이다.

욕은 듣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 한바탕 욕을 하고 나면 누구나 시원한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이 주절댄 욕들을 떠올리면 슬그머니 면구스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입과 혀가 먼저 움직여서 욕을 뱉어낸다. 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카타르시스의 효용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약자이면서도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뱉는 욕, 듣는 사람이 야만중에도 없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버리는 욕, 이런 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까. 그냥 안으로 앙심을 품는 것보다 밖으로 풀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

두고두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 사회는 또 얼마나 삭막해 질 것인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한마디 욕설을 하고 풀어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이 바쁜 사회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가슴에 품고 있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풀어버려라. 절절 끓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확확 내뿜어서 건강하게 살아라. 더러운 세상을 향하여 "이 간에 웅이 올라 끓지도 못하고 죽을 시러배 자식 놈들아"하고 소리 질러 보자. 그리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서 더 이상 욕이 필요없는 사회를 꿈꿔보자. 이것이 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전국 욕대회' 수상자 (사진: 시사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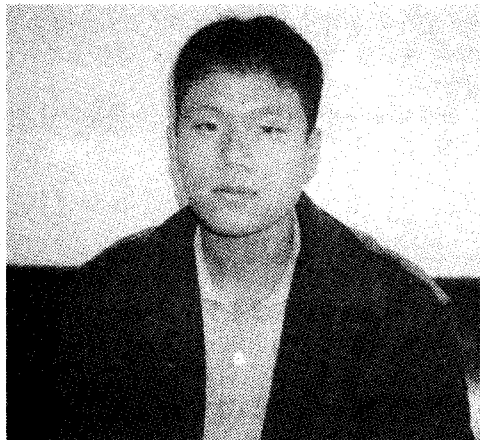
가슴에 품고 있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풀어버려라  
절절 끓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확확 내뿜어서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서 더 이상  
욕이 필요없는 사회를 꿈꿔보자  
이것이 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캠퍼스 예술인

□ 청맥 회장 최원형(사회과학 1)군

## 철저한 암흑속에서 역설적으로 그려내는 빛



그의 시에는 친구의 죽음, 스무살의 짧은 삶을 회고하는 한 사내가 있다. 사내에게 세계는 암흑이다.

글을 벗어난 그는 '시인'이란 칭호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장난기 가득하고 익살스러운, 하지만 그의 글에서만은 '캠퍼스 시인'이란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청맥'의 회장 최원형군을 만나 보았다. 너무도 밝은 미소로 반기는 최군에게 그의 시속 우울한 사내의 모습은 없었다. 그의 얼굴은 '미소'를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상태로 글을 쓸 수 있는 재간을 가진 이는 없을 까라고 단정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많은 글들에서 기쁨과 환희

를 노래하는 이들을 만난다. 하지만 검은 빛깔만이 존재하는 그의 원고지를 보면 그 '단정'을 이해하게 된다.

"제 글은 어둡습니다. 그 글을 통해 저는 내 안의 나에게 이야기 하죠. 이렇게 제 글은 제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도 내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속삭여 왔다.

"선부터 시인의 용내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글쓰기를 통한 공감과 공유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는 글쓰기 작업을 통해 다인어와 마주치게 될 자신을 준비하며, 이러한 작업에서 타인에게

밝은 미소를 보일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고 말한다. 글쓰기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고민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된 삶과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해 나가는 작업인 것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거창한 작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저 머리속에 맴도는 낱말의 파편들이 문장이 되고 시 한편이 될 뿐이다. 그러나 자신만의 조립방식이 있기에 글쓰기는 여전히 힘이 된다.

최원형군, 그의 원고지는 철저한 암흑세계이지만 그러한 표현은 더 강한 빛을 발하는 그만의 역설인지도 모른다.

(류지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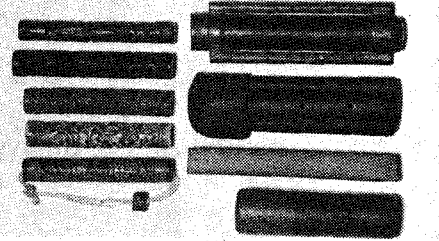
## 경희유산시리즈

### ① 경희 한의학

경희캠퍼스는 경희인의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경희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진료소와 경희의료원이 있으며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 각종 의료관련연구기관도 있다.

의료관련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희 구성체의 1차적인 건강을 맡고 있는 경희보건소(62.10.1)의 건립을 시작으로 안암한의원(66.6.1)과 시내한의원이 개설되고 동서의학연구소(71.2.27), 경희의료원(71.10.5), 보건진료소(72.9.1) 등이 개설되었으며 동양의학연구소와 한의학교육연구 위원회도 결성되었다. 현재는 제2의료원의 개원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한의과대학은 동양의과대학(한의학과, 약학과)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흡수 병합(1965.4.27)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침통(鍼筒)

그동안 축적된 한의과대학의 연구성과는 매우 높은데 무약물 투입의 침술마취 수술이 성공(72.11.8)한 바 있고 세계침구학술대회를 개최(73.9.25)하여 365명절의 국제적 통일번호를 경희한대로 채택하였다. 또한 동양 의학의 서양 의학을 조화시켜 연구하는 동서의학연구소(73.12.14), 동서약학연구소와 한의학교육연구소(87.10.29)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의학분야의 기초는 물론 첨단 의학을 다루고 연구하는 각종 연구·실험실이 있다.

경희는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을 가진 종합적인 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는 연구대학이다. 경희에서는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와 서울캠퍼스의 한의학과학기술훈원, 수원캠퍼스의 정부·한의학 연구대학의 공동사업인 한방임상연구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 양·한방 협진을 연구·추진하고 있다. 동서의학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구자적인 노력은 바로 경희 정신의 실체로 구현된 것이다. 경희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3의학을 창출하여 한국 의학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건강에 봉사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 일 환 &lt;중앙박물관 연구실&gt;

## 문화단신

문예동아리 '청맥' 창립제 문예동아리 '청맥'이 오는 26일 6시에 창립제를 개최한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라는 제목으로 연극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팽소 댕거리, 작품발표와 토론으로 준비한 많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는 학생회관 2층 소극장이다.

연속 설유조형전 연속의 SOFT SCULPTURE 전이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인사동 갤러리사각에서 열린다. 이 작품전은 우리가 재빨리 느끼는 동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했다. 폐품을 이용한 새로운 가치 창조로서의 조형성을 추구한 결과 현대미술 속에서 설유미술 전공만이 갖는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는 갤러리사각 730-6538/9 이다.

▲달래강(부분)

## 입시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초청행사

정확한 정보를 통한 당신의 선택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 ◇행사내용◇

입시설명회와 주요시설 안내

### ◇일시◇

1997년 12월 7일(일요일)/12월14일(일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 ◇장소◇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 ◇교통편(스쿨버스 운행)◇

수원역 9시30분, 13시30분

미금역 9시30분, 13시30분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Attention Please!

